TOLO

Learning through play

세트 시트
First Friends Hospital Set

1~5세
연령

First Friends Hospital Set

아이들이 의사에게 진료받는 상황을 미리 연습해 볼 수 있는 역할 놀이입니다.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 신체와 돌봄에 관한 어휘, 공감 능력, 사건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능력을 지원합니다.

구성품
구급차, 의사, 간호사, 환자 2명, 진료소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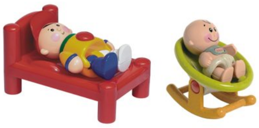
대상 시장
겸용 — 가정 & 교육

세트 구성

First Friends Ambulance
24 × 19 × 18 cm

의사

간호사



환자 2명과 병원 가구

아이들이 배우는 것

감정 이해와 표현
다쳤을 때, 무서울 때, 위로받을 때의 감정을 경험합니다. 아이들은 병원 역할 놀이를 통해 돌봄을 받을 때 느끼는 감정을 안전하게 탐색합니다.

언어
의사, 간호사, 붕대, 나았다, 살살, '어디가 아파?' 몸과 돌봄에 관한 낱말입니다.

사회적 놀이
돕는 사람과 도움받는 사람의 역할을 맡아 보고, 역할을 바꾸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떤 기분인지 알아봅니다.

세상 이해하기
병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왜 그런지. 익숙해지면 실제로 방문할 때의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순서대로 배열하기
넘어지기, 부르기, 구급차, 병원, 침대, 나음, 집. 순서가 있는 병원 방문은 이야기이자 안심입니다.

소근육
구급차에 환자를 앉히고, 인형을 침대에 눕히고, 의사를 책상에 앉힙니다.

한 세트로 5년간의 놀이

1~2세
구급차를 밀고, 인형을 태웠다 내리고, 사이렌 소리를 냅니다

2~3세
의사와 간호사를 알아보고 이름을 말하며, 환자를 침대에 눕히고, '나았어'라고 말합니다.

3~4세
짝과 함께 병원 놀이를 합니다. 어디가 아픈지 묻고 치료해 줍니다

4~5세
친구들과 함께 병원 역할 놀이를 하고, 병원 방문의 전 과정을 순서대로 표현하며,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날 해보기

구급차 타기
12~30개월 · 환자가 뒤에 타고, 문이 닫히고,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갑니다.

어디가 아파요?
2~4세 · 의사가 묻고, 환자가 보여 주고, 의사가 도와줍니다. 몸에 관한 낱말을 실제로 씁니다.

무서워하지 마
3~5세 · 환자가 겁에 질렸습니다. 간호사는 뭐라고 말할까요? 무엇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줄까요?

주제 연결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 · 건강 관리 · 내 몸 · 감정 · 안전하게 지내기 · 병원과 의사 · 돌봄 받기

더 많은 Education 세트
스캔하여 모든 세트와
교사용 자료 보기